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8호 2019년 12월 01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08	12. 15	12. 22
대 표 기 도	유미영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유미영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헌 금 위 원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한명희 집사
안 내 위 원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겔1~21장)
3. 선교사 선물 -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2가정)에 발송했습니다.
4. 담임목사 동정 - 세미나 참석 (Oyster Bay, 12일 귀국)
5. 새벽기도 - 금 주 토요일 (7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6. 성탄 축하예배 (15일 주일예배) - 주일학교에서 성탄발표회 합니다.
7. 성탄절 예배 (25일, 수요일) - 성탄감사예배 드립니다 (오후 2시)
8.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새 교우	노지민 형제 - Oldenburg uni (neroscience 석사 과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특별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 (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1.Adven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 ..... 101장 .....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 교독문 115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245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계 19 : 1 - 10(신p418)..... 장준화 형제  
(Offenbarung 19:1-10)
- 설 교 Predigt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자 .....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246장 .....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 ..... 마26:26~30, 228장(2,4절)..... 담임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 54장 .....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 친교실

오늘날의 잊힌 축복

청교도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입교문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입교 심사위원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지를 심사하는데,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때 그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제를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Henry Holloman교수는 성화를 가리켜 “오늘날의 잊힌 축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거룩함보다 축복과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목사)

\* 예수라는 작은 단어 하나가 사탄을 넘어뜨린다. - Martin Luther -